새누리, 광주 서을 보선 '이정현 바람' 노린다

후보 난립 양상 속 '맞춤후보' 정승 차출 김무성 대표 전폭 지원 이정현 전면에 나서

26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 광주시당에서 열린 '4·29재보궐선거 광주 서구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승 예비후보를 격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지역 출신인 정승 전 식약처장을 맞춤형 후보로 차출한데다 야권은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에서는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이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 4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지지층을 결집하고 총력을 쏟는다면 광주에서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하는 이변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여당의 불모지'인 광주를 찾아 정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필두로 강석호, 정양석, 손인춘 사무부총장과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대변인 등 중앙당 당직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시당 핵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광주에서 정 후보에게 딱 1년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당직자들과 함께 단상에서 큰 절을 하고 "정 후보는 광주가 낳고 광주가 키운 인물로 당선되면 '예산 불독'같이 일해서 광주시민을 정승처럼 모실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 변화를 갖고 오는지 아닌지 믿고 1년만 국회의원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나"며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남발전 예산을 싹쓸이해오듯 정승도 광주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정승 후보가 30년 만에 광주에서 당선되면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집권당이 아니면 예산을 가져오기 어려운데 정 후보는 많은 예산을 끌고 올 능력이 있는 일당백을 할 사람"이라며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의 한 사람"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19대 총선 당시 경험을 되살리며 광주 서 을 선거전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필승결의대회에서 특강을 맡아 "정승은 광주 시민이 키운 사람이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2년 밖에 안 된 이 정권에서 장관급 식약처장을 지내고 이 정권의 모든 인맥을 가진 광주에서 가장 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광주도 양 날개로 날아야 발전할 수 있다"며 "30년간 한 당이 독식하게 밀어줬는데 이번에 정신 차리라고 1년짜리 새누리당을 밀어준다고 민주당, 광주가 망하겠나"고 목청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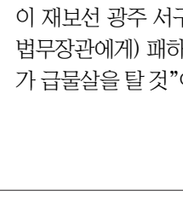
정 후보는 선거 구호로 '전남은 이정현, 광주는 정승', '예산불독 정승'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정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광주가 발전하고, 새정치연합은 정신 차리고, 새누리당도 변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1년 안에 해묵은 숙제를 다 풀어낼 자신이 있으니 광주의 진짜 아들 정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울 관악을 정동영 출마?

"29일까지 생각 정리"…출마 가능성 시사



국민모임의 정동영〈사진〉 전 의원이 26일 4·29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인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국민모임 상임위원장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회동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오는 29일 별도로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의원은 29일 국민모임 창당발기인 대회 전까지 출마할지를 계속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김 교수 등 국민모임 측의 입장을 공식 전달받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오는 일요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출마 가능성을 완전 닫지 않았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회동 후 언급도) 오늘 아침 언론에 얘기한 것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동반 탈당하고 국민모임 창당에 동참한 최규식 김성호 임종인 전 의원 등 멘토그룹과 연쇄 모임을 갖고 출마 문제를 상의할 예정이다.

이들 탈당파 사이에선 불출마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관악에 나가면 이긴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의 역할은 내년 총선 때 진보개혁 세력 결집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재보선이 생겼다고 정동영을 투입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의원도 이날 회동 후 배포한 자료에서 "불출마 약속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출마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며 "단판승부보다는 대안야당과 대체야당을 건설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불출마를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측근들은 "거꾸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남 중진인 박주선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광주 서구 을에서 (천정배 전 법무장관에게) 패하면 (호남)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위 독립성 확보를 국회의원 관여땐 공정성 의심"

이병석 위원장 "특위 권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6일 "4월 국회에서는 기존의 여야 합의인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 확보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당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서 선거구획정위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처럼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도록 방치하면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에게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 독립은 1월 양당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정개특위에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에만 신경 쓰겠다"며 "새누리당도 4월 내에 선거구획정위 독립 법안 처리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선거구 재획정을 하는데 선거구 재획정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 밖에 제3기구나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객관적 지렛대로 선거구 재획정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개특위가 수정이나 가감 없이 찬반 토론만 해서 국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제3기관에서 확정한 선거구 재획정안을 바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지만 어느 쪽도 법적으로는 정개특위 의견을 거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종 권한은 정개특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년새 대표 세번 교체…'문재인호' 연착륙 4월 보선이 변수

■ 창당 첫돌 새정치민주연합

26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새정치연합은 당 대표만 세 번이나 바뀌는 등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

옛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세력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결의하면서 출범한 새정치연합은 통합의 주역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안 의원의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당내 반발로 철회하고,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김·안 공동대표는 취임 넉 달 만에 중도하차 했다.

바통을 이어받아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영입 파동에 두 달도 못돼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두 번째 구원투수로 등판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계파 수장들로 비대위를 꾸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 2·8 전당대회까지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간발의 차로 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당권을 차지했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친노와 비노 구도가 불안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문 대표가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며 '탕평' 당직인사에 나서고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을 표방해 중도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면서 일단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만족치 않은 성적을 거둘 경우, 새정치연합은 친노와 비노 진영이 격돌하는 등 또 한 번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비노 세력은 말을 아끼며 4월 보궐선거 이후에 보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참패할 경우, 신당 창당 가능성 등 야권 재편마저 거론하고 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광주 서 을에서만 승리하는 등 체면 치레에 그치는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단 문재인 대표 체제가 연착륙하면서 새정치연합의 내부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4월 보궐선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계파 갈등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